

galleryDOWNTOWNfrancois laffanour

최병훈은 가구로 순수한 예술작품을 창조해내는 작가다. 그는 우리를 실용의 세계 뿐 아니라 자기성찰과 명사의 세계로 향하도록 이끈다. 그의 작품에 사용된 돌들은 오랜 시간을 갈고 닦여 마침내 장중하게 세워진 석조 오브제로 변모되어 고요와 평온 그리고 조화의 느낌을 발한다.

바로 도(道)와 선(禪)에서 비롯된 승고하고 단순한 모습의 자연이 그 자체로 우리에게 말을 건넨다. 최병훈은 자신의 가구들을 다듬으며 돌의 자연미와 나무의 본질을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로 드러냄으로써 우리를 작품 핵심에 다가가도록 한다. 이를테면 그의 가구들은 간결함으로 시대와 양식을 넘어서 단순함 그 자체로 대중의 상상력에 맞닿고 있는 것이다.

끊임없는 연마작업으로 다듬어진 장방형 테이블의 아름다운 목재 상판은 대조적으로 매우 단단해 보이는 자연석 위에 섬세하게 얹혀져 있다. 이처럼 완벽한 균형의 정묘(精妙)한 구조가 우리를 성찰의 시간으로 초대하며, 안온(安穩)한 명상과 끝없는 평온으로 이끄는 것이다.

최병훈은 조각과 가구 사이의 중간 위치에서 작업하는 작가다. 이사무 노구치나 론 아라드 (역시 다운타운 갤러리의 대표작가)와 같이, 최병훈은 가구를 제작하는 동시에 조각 작업을 한다. 그의 관심은 이 두 영역에 동일하게 매력을 느끼며, 그의 작업은 결국엔 두 가지 작업이 뒤 섞인 작품으로 끝난다. 따라서 그가 만든 의자를 보면 우리는 우리가 예술적 형태를 지닌 의자를 보고있는 것인지, 아니면 앉을 수 있는 조각을 보고 있는 것인지 확실하게 알 수 없다.

이와같은 '불확실성'은 1953년 앙드레 블록이 미술장르 사이의 경계 구도를 변화시키고 예술 통합의 새로운 개념을 촉진하기 위하여 'groupe Espace'를 결성했듯이, 예술가들에게 필연적으로 추구하고 개척해 나갈 새로운 영역에 대한 활로를 열어준다.